

“광주 첨단2산단 용지 소수기업 독점”

기아차 K3 출시 신차발표회 “월 1만대 판매”

국회 산업단지공단 국감...전국 외투지역 동일 임대료 차등화도 촉구

광주일보가 처음 보도한 광주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폭탄(7월3일자 1·3면)과 첨단산업단지2단계(첨단2산단) 산업용지에 대한 일부 기업의 독식(4월20일자 12면) 논란이 국경감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경감사에서 경제여건 고려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외국인투자단지 임대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국가 불균형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광주 평동의 투자지역의 경우 월 임대료 상승률이 20.8%에 이르고 앞으로 2~3년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 이후 임대료를 갱신한 10개 기업의 임대료

증급이 500~900%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전반적인 산업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차등 적용했으며 투자 촉진을 위해 입주자격과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 왔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여건이 엄연히 다른데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동일화한다면 이는 대표적인 국가 불균형 발전정책 아닌가”라고 따졌다.

중소기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첨단2산단 산업용지의 소수 업체 독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상기(주)링크라임아이앤씨 대표는 “첨단2산지가 8개 기업이 50% 이상을 가계약 형태로 확보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

보육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책을 호소했다.

김 대표가 제기한 첨단2산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임대실적이 저조하자 2008년과 2009년 사업비 회수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자본력과 투자여력이 있는 소수 기업을 대상으로 가계약했다.

문제는 전체 장기 임대단지 58만 4431㎡(17만7000평) 중 55.3%인 32만3000㎡(9만8000평)를 8개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사는 2개 필지 7만1000㎡(2만1500평), B사는 1필지 4만8000㎡(1만4500평)를 임대했다. 나머지 6개 업체도 3만1000㎡(9400평) 이상 계약했다.

민주통합당 오영식(서울 강북갑) 의원은 “특정기업들에 단지가 편중된 것은 산단 조성 취지에 맞지 않다”

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입주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광주 첨단2산단의 문제만 아니다. 과거에는 산단의 대규모 일괄분양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산업단지 입지 공급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첨단2산단 부지 문제에 대한 산단공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경수 산단공 이사장은 “LH와 첨단2산단 부지의 가계약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했으나 법률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LH가 가계약에 대해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중국 합작법인 동광위에다 기아(東風悅達起亞)는 16일(현지시간)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올림픽센터 체육관에서 준중형승용차 K3 신차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설영홍 현대차그룹 부회장, 천원화(陳雲華) 동광위에다기아 동사장, 소남영 동광위에다기아 부사장, 장경(夏耕) 산둥성 부성장, 수수웨이(蘇樹偉) 지난시 부시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아차는 ‘K시리즈’의 디자인 정체성을 계승하며 역동성과 세련미를 겸

비한 K3에 중국 현지 고객의 요구를 대거 반영해 차별화를 추구했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K3 대비 전장(4600mm)을 40mm 확대해 불투광을 강조하고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차별화했다.

차량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이드 에어백을 기본으로 채택하는 한편 커튼 에어백, 차체자세제어장치(VDC),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등 안전사양의 적용을 확대했다.

동급 최고 수준의 1.6 감마 가솔린 엔진, 1.8 누우 가솔린 엔진, 6단 변속

기를 탑재해 주요 경쟁차 대비 우수한 동력성과 연비를 확보했다.

기아차는 중국시장에서 K3를 월평균 1만대 이상 판매해 안정적으로 진입한 후 3공장이 준공되는 2014년 이후에는 연간 14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등 중국 준중형 차급의 주력 차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과 6월 중국시장에 선보인 K5와 K2는 지난달 각각 4895대와 1만5656대 팔리며 월간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그룹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을 맞아 ‘2012 글로벌 빈곤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연 재해·내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산지역 유일 대규모 아파트단지 서산테크노밸리 택지 주목

최근 광주지역 주택건설업체인 고운시타이(주)(대표이사 백영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서산테크노밸리 공동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서산테크노밸리(대표이사 봉희룡)는 16일 고운시타이와 서산테크노밸리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316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산테크노밸리 공동주택 용지는 이번 제1차 택지 7075평, 316가구의 분양을 준비 중인 835가구 등 총 1151가구 규모다. <조감도> 이 용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들의 투자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이 완공 단계에 이르면서 기업 투자가 활발하다. 인구도 해마다 1200여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산테크노밸리는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서산테크노밸리는 서산 북부권 개발축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서산일반산단·서산2일반산단·성연농공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특히 서산 도심과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이동 경로에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

기존 도심과 대산지역의 주거시설의 노후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생활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계획 신도시가 조성돼 기대감 또한 높다.

총 10만평 규모의 공원과 녹지, 수변공원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친환경적이다. 한화이글스 2군 구장 조성으로 여가·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30대 재벌 계열사 5곳중 1곳 내부거래 비율 70% 넘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30대 재벌 계열사 5곳 중 1곳꼴로 내부거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그룹 소속 1165개사의 지난해 계열사 간 매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비율이 70% 이상인 계열사는 18.1%인 211개사였다.

이는 전년도의 190개사보다 21개사(11.1%)가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매출 전체(100%)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곳도 작년엔 79개사(6.8%)로 집계됐다. 2010년 67개사에서 17.9%(12개사)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70% 이상 내부거래를 한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21곳이었다.

현대차그룹과 GS가 각각 20개사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SK(16개사), CJ(15개사), LG(14개사), 한진(13개사)도 10곳을 넘었다. 내부거래 비율 70% 이상의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진과 현대그룹이었다. 한진은 8개에서 13개사로, 현대는 0개에서 5개사로 각각 5개사가 늘었다.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인 계열사는 대부분 비

상장사인 것으로 드러나 비상장사를 통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내부거래 비율 70% 이상 계열사 211곳 중 상장사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13곳(6.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198곳, 93.8%)는 모두 비상장사였다.

한편, 30대 재벌그룹 내부거래 총액은 2010년 128조1000억원에서 작년엔 162조3000억원으로 26.7%(34조2000억원) 늘었으며 내부거래 비율도 평균 12.55%에서 13.77%로 1.22%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 1,941.54 (+15.95)
코스닥지수	▲ 530.23 (+0.90)
금리 (국고채 3년)	▲ 2.78% (+0.02)
원·달러 환율	▼ 1,107.20원 (-3.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전남도 FTA활용지원센터 방문 컨설팅 지역 중소기업 수출입 도움

전남도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실무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역 농수산물류 수출입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FTA 종합실무교육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FTA 현장 방문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농수산물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교육에서는 농수산분야의 특화된 내용으로 FTA 활용전략,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증명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 FTA 전담 관

세사를 배치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기업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교육에 참가한 (주)청화농수산 이강재 대표는 “그동안 무심코 어렵게만 느꼈던 FTA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업종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보를 제공(www.jepa.kr/fta)하고, 무료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FTA활용지원센터는 FTA 발효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오주승)에 개설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올 선박수주액 189억달러...세계 1위

지식경제부는 올해 1~9월 국내 조선산업이 520만CGT(Compensated Gross Tonnage, 부가가치 환산 톤수), 189억 달러어치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6.3%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6%(수주액 기준 56.9%)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8% 줄었다. 우리나라의 수주량 순위는 작년에 탈환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유조선, 가스선(LNG선, LPG선 등), 해양플랜트(시추선, FPSO 등) 등 자원개발·운송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선박·플랜트의 수주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1~9월 수출 금액은 320억 달러로 작년보다 28% 정도 감소했다. /연합뉴스




국립향기 그윽한 향로로 함평천지

국향 레전

| 17일간 | 2012.10.26(금)~11.11(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문의 |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 061)320-3349 www.hampyeong.go.kr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RDA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NH농업 함평군사무소 KJB 광주은행